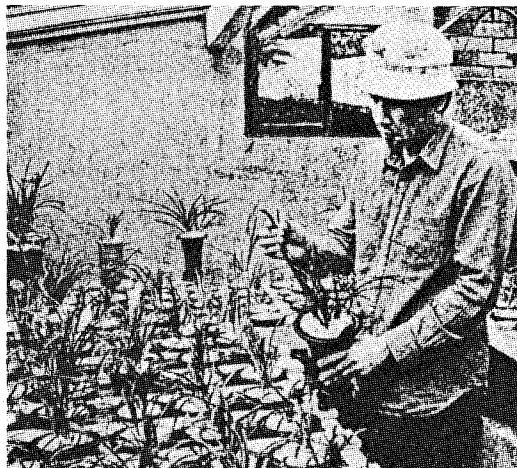


제 126 호 (1975 年 6 月 20 日 文公部登錄 라-1914 號)

전세 어는서 삼척 화다인 요 = 전이 있드 계는 익면느 하번



**식물없이는 인간도 존재할수 없다**

최미이야기 / 난기르기

## 누구나 과민성이 될수있다

간  
기  
상  
사

지기 는의를 허수하는 그 성격의 그  
2년 전부터 10여 일  
소화제 없이는 식사  
못할마를 상습적으로  
화기능장애로 고생하고 있

는 티도  
치료는  
움이 되다.  
정인  
을 통하여  
부부를 미리  
하는 것도  
그러나 어느  
지금까지  
기본은  
가침이  
반드시  
전 전  
해야  
한다는  
로는  
수도  
같았지만  
다시  
회의적인  
활용을  
한 번  
인들을  
것이다.  
해야 할  
것이다.  
인들이  
한 번  
새겨  
현대

서 지만 서로 빠져다니기  
식물은 그런 고민도 하지  
않아서 이쪽에서 대로 따라가니까.  
한 학자는 부담이 없고 또  
모습으로 언제나 그 대로  
온화한 표정으로 자자기  
대화하기 기뻐하는 듯한  
얼굴이다. 그 얼굴은 그  
언제나 그 대로 따라가니까.  
그 얼굴은 그 대로 따라가니까.  
그 얼굴은 그 대로 따라가니까.

○學名: *Imula Hebe-*  
 num L.  
 青木香  
 ○生藥名: 土木香 *토미향*

## 토목향

2. 栽培法  
로 쓰인다.

連載  
栽培教室

協會는 機關紙인 生藥報에 대한 內實에 充實期하고 調和를 한종 높이 위하여 各級 分事務所 및 會員들이 要請하는 廣廣을 告를 앞으로 게재하고 주면 여당에 따라서 3종 우편으로 部數를 5천부 이하로 증가시킬 計劃을 추진하고 있으니다. 천부 6부 할수 있더라도 部數를 5부로 할수 있어야 하며 주서도 무단할수 있다. 차조 혼성이나 불사함. <편집권>

